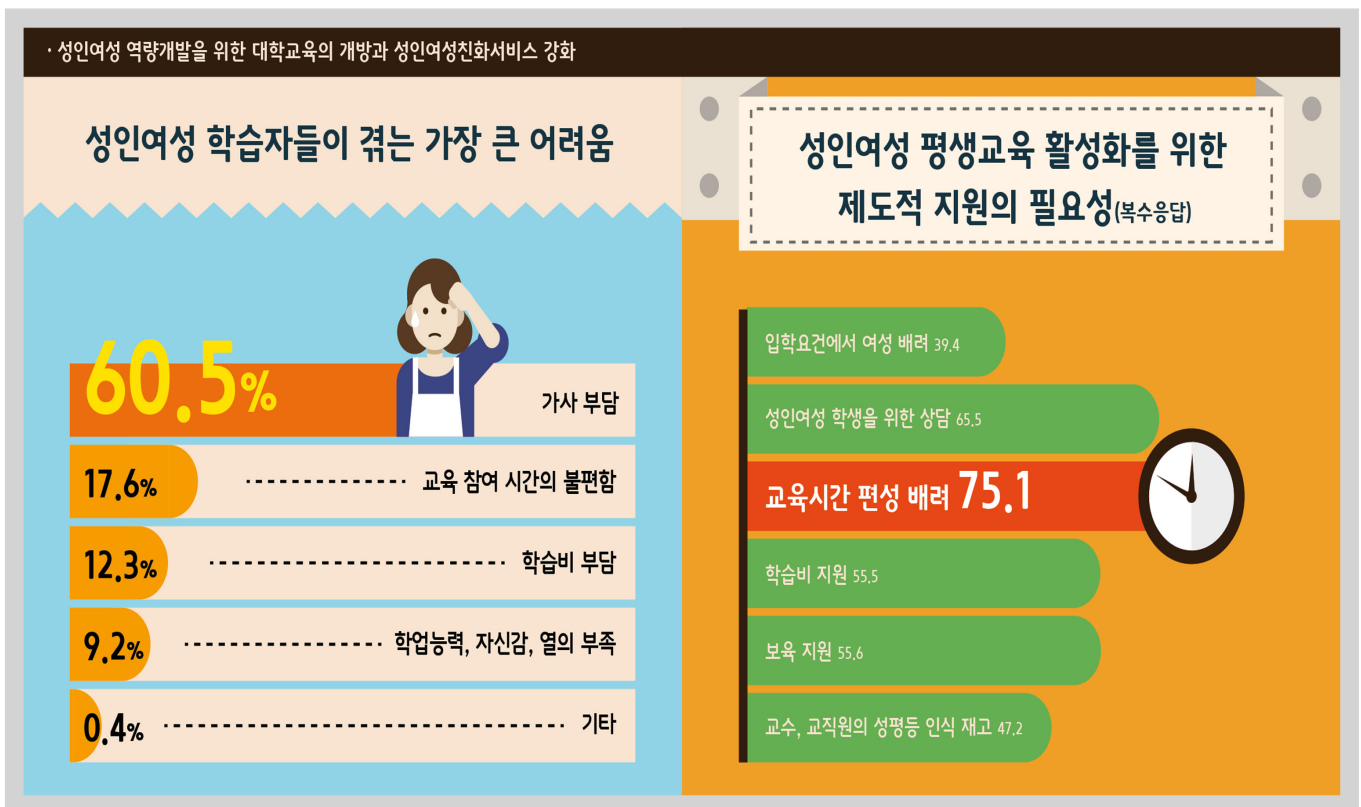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기능 강화 방안 과제책임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4 / e-mail: sjpark@kwidmail.re.kr)

## 성인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방과 성인여성친화서비스 강화\*

“ 전통적인 학령기 여대생이 대학의 주체였던 대학체제가 일부 대학에서 성인여성 특히 재직여성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앞으로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갈 것임.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대학교육기회를 개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인여성 학습자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요구됨. ”



- 전통적으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온 대학들이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해가면서 대학교육의 목적, 조직, 문화 전반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 ▶ 대학평생교육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비학위과정에서 시작하여 성인들에게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평생 학습중심대학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 전통적인 학령기 여대생이 대학의 주체였던 대학체제가 일부 대학에서는 성인여성 특히 재직여성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앞으로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갈 것임.
  - ▶ 현재의 재직자에 국한되지 않는 “과거”의 재직여성, 그리고 일반 여성들에게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수혜를 받는 여성들이 20대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경력단절여성들도 포함될 경우, 일과 학습,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학습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대학 내 성인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 편성 배려(75.1%), 성인여성 학생을 위한 상담(65.5%), 보육지원(55.6%), 학습비지원(55.5%), 교수-교직원의 성평등 인식 제고(47.2%), 입학요건(전형제도)에서 여성 배려(39.4%) 순으로 요구가 많았음.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평생학습사회에서 대학들은 정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능과 더불어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음.
  - ▶ 성인교육을 위해 대학의 자원을 개방하는 것은 평생학습사회에서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음.
  -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와 지식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대 등 사회·경제 적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가진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체제에서 성인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④ 본 연구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성인여성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여성인재 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④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성인여성 교육의 필요성, 여건, 제약 등에 대한 대학평생교육 관련 사업 관계자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음.

조사대상은 대학 내에서 성인대상의 평생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기구)들로, 평생 학습중심대학사업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권역사업단, 대학 내에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며 응답자는 각 사업단의 실무자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권역사업단, 대학 내에 설치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이하에서 “여성정책 사업단”으로 구분하기로 함.

조사대상 모집단은 462명이며 응답자는 261명으로 응답률이 56.5%였으며, 2015년 실적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1. 사업단의 운영과정과 여성참여 현황

④ 조사에 응답한 사업단들이 2015년도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한 사업단은 82.0%이나 학위과정을 운영한 사업단은 26.4%, 학점과정을 운영한 사업단은 40.2%임. 이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대상의 평생교육이 주로 비학위 과정이며, 학위과정이나 학점과정과 같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세 유형의 조사대상 사업단 중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사업은 학위과정(81.8%)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비학위과정(86.3%)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점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49.8% 임. 여성정책사업단은 거의 비학위과정(95.7%)을 운영하고 있음.

④ 2015년에 학위과정을 운영한 사업단에 한하여 입학생의 여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은 55.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75.1%였음. 학위과정 입학생의 여성 비율이 낮은 과정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원인은 “개설학과나 교육과정이 남성이 선호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44.9%)이 가장 많고, “교육시간대가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워” (15.9%), “입학요건을 갖춘 여성들이 적어서”(14.5%) 순임. 특히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입학요건을 갖춘 여성들이 적어서”(29.6%)가 “교육시간대가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워” (18.5%) 보다 응답이 더 많았음.

### 2. 성인대상 평생교육 운영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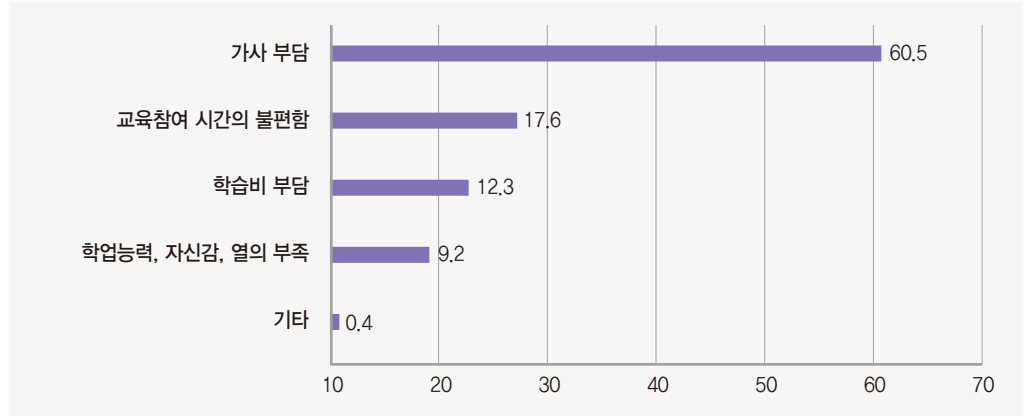
④ 대학에서 성인대상의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성인 입학생 모집”(61.7%)이었음.

다음으로 “교직원 및 학생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 인식 부족”(38.3%), 경직된 학사운영(32.5%), 성인학습자의 학업수행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태도(22.3%), 성인 학습자가 속한 직장의 협조 부족(18.0%), 성인교육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8.5%) 순으로 답하였음. 비학위과정이나 학점과정보다 학위과정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편견과 비판적 태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④ 성인여성 학습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5%가 가사부담(육아, 학습-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 참여시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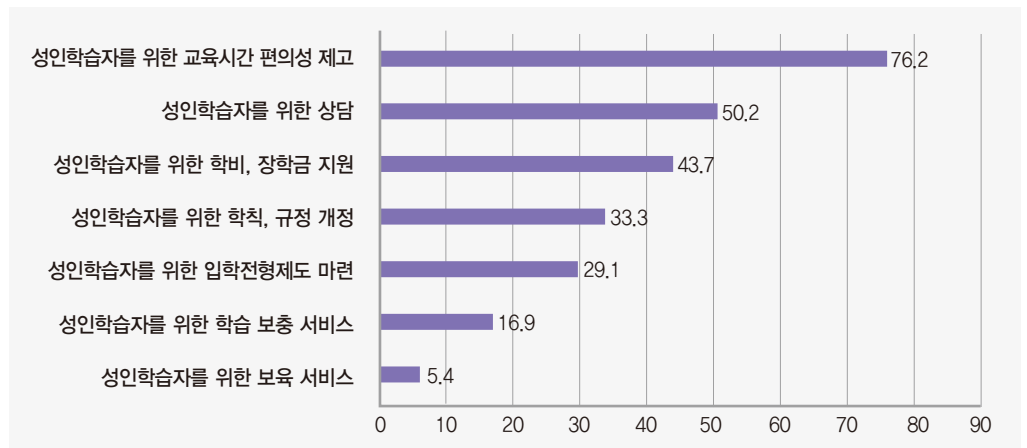
불편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17.6%, 학습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12.3%, 학업능력-자신감-열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9.2%였음.

[그림 1] 성인여성 학습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전체)



### 3. 성인대상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

[그림 2]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 지원(중복응답)



📍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의 제도적 지원을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의 편의성(야간교육, 주말교육, 온라인수업, 대학외부 장소에서의 교육 등)을 제고하고 있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상담(입학, 학비, 보육 등에 관한 상담) 50.2%, 학비-장학금 지원 43.7%, 학칙-규정 개정 33.3%, 입학전형제도 마련 29.1%, 학습보충서비스(학습공백 문제 지원) 16.9%, 보육서비스(5.4%)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은 '성인을 위한 학칙, 규정'이 있다는 비율이 90.9%, '성인을 위한 입학전형제도'가 있다는 비율이 78.8%에 달하지만, 학습보충 서비스(33.3%)나 보육서비스(9.1%) 지원 비율은 낮아, 입학단계에서의 제도 마련을 넘어서 학습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여성정책사업단은 교육시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74.1%와 82.6%로 높은 편이나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지원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임.

여성정책 사업단의 경우는 21.7%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학습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④ 대학 내 성인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 편성 배려(75.1%), 성인여성 학생을 위한 상담(65.5%), 보육지원(55.6%), 학습비 지원(55.5%), 교수-교직원의 성평등 인식 제고(47.2%), 입학요건(전형제도)에서 여성 배려(39.4%) 순으로 긍정적 응답(매우 혹은 대체로 필요)이 많았음.

#### 4. 사업단의 성인지적 운영

- ④ 대학의 성인대상 평생교육 사업단 실무자들에게 각 사업단의 성인지성(여성을 고려하는 정도)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성인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다(장학금, 보육, 휴게실, 상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대체로 혹은 매우 그렇다)이 22.9%에 불과하였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기관장(원장, 센터장) 등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성인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56.1%, 성인여성을 배려한 지원서비스(장학금, 보육, 휴게실, 상담 등)가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함. 이에 비해 여성정책 사업단에서는 기관장(원장, 센터장) 등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성인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82.6%,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도 82.6%, 교육시간 편성 시 여성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배려한다는 응답은 78.2%로 높게 나타났음.
- ④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성인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여성정책 사업단에 비해 낮고 성인여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5. 성인학습자를 위한 취업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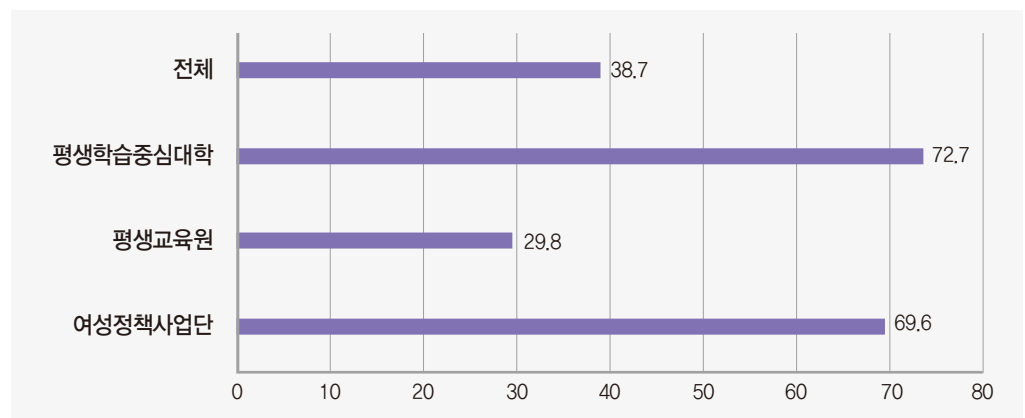
- ④ 대학 내 평생교육 사업단의 성인학습자들이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61명 중에서 49.1%가 긍정적으로(대체로 혹은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음. 사업단 유형별로 비교하면 여성정책 사업단 실무자들(82.6%)의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54.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44.4%) 순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 ④ 각 사업단의 실무자들이 본 성인여성 학습자의 취업요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혹은 “매우”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44.1%를 차지했음. 각 사업단이 성인학습자를 위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72.7%)과 여성정책 사업단(69.6%)이 취업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29.8%)의 취업지원 활동은 저조하였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실무자가 본 성인학습자의 취업지원 요구 정도(40.5%)나 취업지원의 필요성(44.4%)에 비추어 실제 취업지원 활동(29.8%)을 하는 곳이 매우 적음. 따라서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 성인여성 학습자들의 취업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④ 성인학습자를 위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단의 취업지원 방식은 대학 밖의 기관과 연계(55.4%), 강사를 통한 취업지원(51.5%), 대학 내 다른 기구와 연계(46.5%)가 가장 많음. 즉,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단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학내외 유관기관이나 기구로 연계하고 있음.

사업단 내에 성인학습자를 담당하는 취업지원 담당자를 배치한 사업단은 19.8%에 불과함. 취업지원 서비스를 교내외 유관기관이나 기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 연계기관으로 대학 내 취업-창업지원센터(64.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43.6%), 여성새로일하기센터(30.8%), 고용센터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29.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6.4%) 순으로 연계하고 있음.

④ 사업단의 실무자들(261명)이 교내외의 취업지원 연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대학 내 취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대체로”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5%였으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27.3%), 여성새로일하기센터(36.1%),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45.2%),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40.6%)에 대해서는 “대체로”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적어, 대학 내에서도 여성정책 사업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그림 3]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



### 3. 정책제언

전통적인 학령기 여대생이 대학의 주체였던 대학체제가 일부 대학에서는 성인여성 특히 재직 여성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앞으로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갈 것임.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대학교육기회를 개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인여성 학습자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④ 성인여성의 대학교육기회 확대

- 경력단절여성 등 과거의 재직경력 인정
- 재직자전형의 기준 완화
- 재직자 외 성인여성학습자 참여기회 제공
- 대학개방에 대한 대학 내외의 소통과 질 관리 강화

#### ④ 성인여성 친화 서비스

- 성인여성학습자 상담서비스 체제 및 역량 강화
- 경험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일, 학습, 가정 병행 지원
- 대학과 소속 직장의 연계활동

#### ④ 학생활동 참여기회: 학습 외 역량개발 기회 확대

- 성인학습자 자치활동 지원
- 씨름활동, 대외활동 참여 기회

#### ④ 성인학습자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성인여성 취업지원 기능 강화
-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업준비교육 지원

#### ④ 여성정책사업단의 기능 강화

- 대학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권역사업단의 기능 강화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 ④ 사업단의 성인지성 제고

- 성인여성 학습자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 제고
- 여성친화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4. 기대효과

- ④ 대학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인여성의 범주가 현재 재직자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재직여성, 경력단절여성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임. 성인여성의 학습,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성인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서비스가 확대되어, 여성들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박성정 · 신선미 · 김남희(2016).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기능 강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